

책과 서가, 과연 무엇인가...

임수식 사진으로 문다 '바벨'

사진가 임수식(44) 개인전 '바벨'이 지난 28일 전주시 완산구 서화동사건관에서 개막했다. 10년 동안 타인의 서가 400여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모든 서가가 주인의 지식과 품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한 특징을 잡아내며 한지에 손바느질로 이미지를 이어가는 다진 작업을 했다.

사진속 책장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포구로 나온다. 하얀 책장의 책들은 다 흰 포장을 해서 책의 단서를 읽을 수 없다. 누구(소유)가 있었는지, 무슨 책인지, 누가 쓴 책인지 알 수 없다. 이제 책이 의미가 없어진 것인가. 작가는 흐르며 루이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 그 미궁을 벗어나려고 한다.

책은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일단 책(冊)이라는 단어에서 그 주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말로 흘러 보내기 아쉬워서 엮어두고자 하는 공명된 의지가 책에 깃들여 있다. 그것이 얼마나 공명하고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지만, 때로는 사적인 명예욕이나 자기 포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 등 필요치 않는 책 또한 적지 않다보니 책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책의 가치여부에 이견이 있다 해도 책을 관망하는 도서관이나 책으로 공부를 하는 학교는 여전히 신성한 장소로 여긴다. 이런 논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전제를



뛰어 넘는다. 옛날 봉건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책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벼락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거실에 들여놓는 것이 책장과 세계문학전집류였다. 돈 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였다. '책가도'가 흔히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유물이나, 근현대 벼락부자들의 서가를 연상시키는 이유다.

임수식은 어렸을 때 책을 구하기 힘든 개인 사정 때문에 책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임수식의 '책'은 진리의 탐구를 위한 도구였다.

책을 통해 수많은 위대한 석학이 나왔고 과학이 발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식'해졌다. 심지어 신을 부정할 만큼 '분별력'을 갖는

다 해도 인간의 행복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지식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회의 한계에서 사람들은 절망한다.

임수식 '바벨'의 서가는 지혜의 눈을 외부(타인의 지식과 명성)에서 찾지 않고 마음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바벨탑은 생각과, 천국과 지옥, 행과 불행을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인간의 뜻이기에 비로소 가능한 그 무엇을 찾아나서는 것이 작가의 작업이다. 비바람치는 땅 위에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찾아 가고 있다. 이것은 그의 열린 마음에 대한 열원이며 근원에 대한 모색과 성찰이기도 하다.

임수식은 중앙대학교에서 사진으로 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책가도·정물의초상(서울 한미 사진미술관, 2017), 풍경3부작-랜드스케이프 오브 디자이너(서울 갤러리 밈, 2016), 책가도(스페인 파시코메디아스 갤러리, 2014) 등 16회의 개인전과다수공공프로젝트-빛, 소리, 풍경(덕수궁, 2017), 비온드 랜드스케이프(스페이스 아트 N, 중국 상하이) 등 100여회의 국내외 기획전에 참여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미사진미술관, 라이너스체력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으며, 제1회 수립사문학상을 수상했다.

전시는 10월28일까지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 화요일은 휴관한다. 개막식을 겸한 작가와의 대화는 지난 29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뉴스

"동학농민혁명의 명예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사명"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인문학강좌 개최

고창군은 지난 28일 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고창군관광해설사,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 및 회원, 녹두교실 회원, 군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인문학강좌를 열었다.

이날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연구해 온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배항섭 교수님을 특별 초빙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반봉건 반외세'를 지향한 민족민중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미, 혹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정신에서 보이는 비폭력성을 중국이나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주요한 민중운동과 비교하여 풀어 나갔다.



인문학 강좌를 받은 관공해설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세계사 어느 혁명에 뒤지지 않는 동학농민혁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동학

의 위대한 유산이 고창에서 시작되었음에 자긍심을 가진다"며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 하였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인 우리가 정의로운 우리 고창의 면면을 이어나가면서 그 위대한 정신을 선양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창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신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자랑스러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얼굴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

이정은 여섯번째 소설집 '피에타' 발간

"신은 유독 어머니에게만 강요했던 것 같다. 삶의 마지막까지 따라다녔을 저 깊고 짙고 상처, 엄청난 고통과 슬픔, 바로 그 속에서 오순도순 살라고, 그리고 나처럼 부활하라고, 더 높이 올라 영원히 안식에 이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신의 요구를 어머니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머니는 자식을 잃는 십자가 죽음을 체험했고, 자신을 버렸고, 이웃을 섬기며 돌보았고, 죽을 때까지 신에게 순종했다. 온전한 말감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 졌다. 어머니는 나에게 종교가 되었다" ('피에타' 중)

작가 이정은(79)씨가 여섯 번째 소설집 '피에타'를 냈다. 표제작을 비롯해 '왕이 귀환하다' '칠공주' '지구 이야기' '칠공주' '생태관찰' 등 7편이 담겼다.

'피에타'는 이타주의를 온몸으로 구현하는 어머니를 딸의 시선으로 그린 중편이다. 젊을 때부터 거지들에게 밥, 옷가지, 잡자리를 거의 무한으로 퍼주는 어머니는 딸보다도 그들을 먼저 살릴 정도다. 세월이 흘러서도 마찬가지다. 노숙자, 독거노인, 행려병자 등을 보살핀다.

'왕이 귀환하다'는 지난해 제42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조족 두목 오대룡의 쇠락한 말년을 사실감있게 묘사한 단편이다. '생태관찰'은 실패한 천재 의학자 최영석과 그를 사모한 후배 김희선의 사랑 이야기다. 최영석은 평범한 임상 의사의 길 대신에 사탕의 묘약인 페로몬 합성 연구에 몰두한다. '칠공주'는 소녀들의 성장소설이다. 7공주와 '짱'이던 유경옥의 사랑원인을 규명한다. '뷰티풀 마인드'는 감정으로 팔다리를 잃고 얼굴이 뚱뚱해진 환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 태생인 이씨는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다. 1991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 '부하기'가 담



선배 프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민우 박영준문학상, 2012년 아시아황금사자문학상 우수상, 2012년 들소리문학상 대상 등을 받았다. 한국문인협회 문인권익옹호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학평론가 임현영씨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한계, 착함과 올바름, 이기심과 배움 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며 "가톨릭 신자인 이정은 작가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치밀한 심리 묘사로 얼굴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모티브로 한 철저한 문학의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피에타' 368쪽, 1만4800원, 나남. /뉴스

중화산1동 트릭아트 야외 미술관 어린이 인기 '독차지'

휴식공간 역할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주민센터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트릭아트 포토존이 지역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 트릭아트 야외미술관은 동 주민센터를 찾는 지역주민들 위해 업무 뿐 아니라 휴식공간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트릭아트는 과학적 화법과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평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든 것으로 보는 각도나 시선에 따라 그림이 움직이는 등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8일에는 중화산동소재 '어깨동무어린이집과 크는나무 어린이집의 아동 20명이 트릭아트 포토존에서 산과 나무, 꽃, 나비, 풀, 눈사람 등과 함께 사진을 찍고 동 주민센터 옥상 하늘정원을 견학한 바도 있다.

배진성 동장은 "도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주민센터에서 자연을 맘껏 느끼게 되어 무척 기쁘고, 10월초 관내 배꼽샘 인근 포토존이 완공되면 중화산1동을 많은 시민들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